

우수회원기업탐방



## 대한주택공사 에너지사업단

# 인천논현 택지 개발 지구부터 본격 시작



신광현 사업단장

대한주택공사는 주택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1961년 1월 20일 대한주택공사법을 제정하고 조선주택영단을 승격시켜 1962년 7월 1일 설립하였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공주택건설·공급, 도시정비사업, 신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04년까지 주택건설 1,551천호를 건설하였고 현재 자본금 8조원 임직원 4,20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다년간의 주택난방기술을 바탕으로 공사 최초로 98년 인천논현 택지개발지구에 추진하여 '00년 사업허가를 받은 이래 '04년 대전서남부와 '05년 아산배방지구에 대한 사업허가를 받았으며 공사

에서 집단에너지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에너지사업단은 4팀 1사업소 4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업추진현황

공사가 최초로 추진한 인천 논현 집단에너지사업은 산업자원부와 집단에너지타당성 협의결과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임에도 열공급사업 신청자가 없었으며 대기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을 추진중인 지자체에서도 택지개발사업자인 공사에 사업추진을 적극 요청하여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집단에너지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택지개발, 공동주택건설, 집단에너지시설, 인프라구축 등 종합 관리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00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다.

사업지구는 인천광역시 남동공단과 소래포구 사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73만평 규모의 한화지구가 있고 서쪽으로 '92년부터 개발된 연수지구가 있다.

이에 공사는 '04년 1월 연수지구 일부를 사업지구로 허가받았으며 인천시의 쓰레기소각열을 '06년 6월부터 공급 받도록 협약 체결하였고 현재 공정 50% 정도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아산배방지구도 주공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구로 1단계 면적 111만평을 2008년까지 개발하게 된다. 천안아산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업무용 및 상업용 건물과 주택 8,125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추후 2단계로 면적 약 700여만평에 주택 6만여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허가받은 사업계획은 1단계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냉·난방열과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을 겸하는 최초의 집단에너지사업으로 복합화력 발전 시설, 보일러, 변전소 및 열과 전기의 공급 배관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서남부지구는 '03년 3월 산업자원부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구로 지정하여 '04년 5월 공사에서 사업

허가를 받은 지구로 택지개발계획 1단계로 '10년 6월까지 개발면적 177만평에 23,676호를 건설할 예정으로 승인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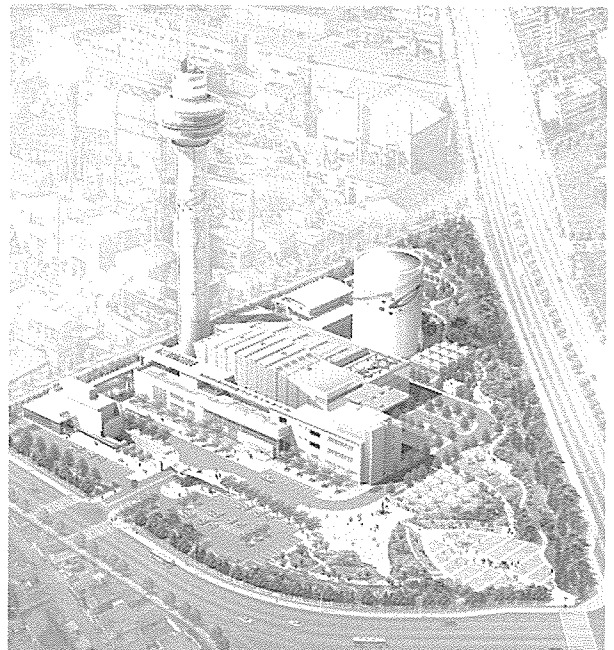
추후 2단계 288만평에 약 45,000호의 추가 건설계획이 마련된 지구로서 인근에 '90년대 중반에 중앙난방방식으로 개발된 둔산지구 및 관저지구가 있어 열공급지역 확대에 유리한 지구이다.

지구별 시설계획 및 열공급일정은 아래표와 같다.

앞으로도 공사는 한국지역난방협회 회원사간의 유대강화로 지역난방사업의 발전과 올바른 에너지사용실천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인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

#### 〈지구별 사업개요〉

항 목	인천논현	아산배방	대전서남부
위 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충남 아산시 배방면	대전시 서구 도안동
시설계획	· CHP · HOB	103MW + 92Gcal/h 68Gcal/h x 27기	48MW + 80Gcal/h 68Gcal/h x 27기 96Gcal/h x 17기
· 축열조	20,000 m <sup>3</sup>	20,000 m <sup>3</sup>	22,500 m <sup>3</sup>
· 기 타	소각열 43Gcal/h		
열공급 개시	'06년 3월	'08년 3월	'09년 6월



〈인천논현 집단에너지시설조감도〉